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4년 12월 27일 (금)  
-- (윤력 11월 27일) --  
Пятница  
27 декабря 2024 г.  
№ 50 (12117)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새해를 맞이하는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레닌 광장.

(이예식 기자 촬영)

###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어느덧 2024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새고려신문(조선로동자, 레닌의 길로)이 창간 7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신문사에서는 이 "75주년을 어떻게 기념해야 하는가?"란 고민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정세도 그렇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수군사작전 등으로 크게 기념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단, 독자들이 글짓기 실력을 발휘했으면 하는 목적으로 전례대로 문예창작 공모를 공고했고 사진 공모전도 했습니다.

이 모든 공모전들의 수상자들을 모시고 10월에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사할린 한인족지 75주년 기념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11월에는 안산 고향마을에서 새고려신문 75주년행사로 '독자들과 만남'행사를 열었습니다. 이 두 행사에서 첫 호부터 우리 신문을 애독하시는 분들(사할린 행사에서는 100세의 이순귀 할머니, 한국 행사에서는 93세의 전채련 할머니)이 참석해 주셔서 뜻깊고,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애독자들이 계셔서 신문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신문에 대한 독자들의 따뜻한 애정에 뿌듯함과 함께 고개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 행사들을 위해 후원을 해주신 '그린 팔라스'건설업체 권운호 대표 이사님, '그린 솔루션'회사 안화자 대표님, '베들레헴'회사의 장용운 사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신문에 글을 투고해주시는 허진원 작가님, 진 율리아 역사학 박사님, 임 엘비라 교수님, 대한고려인협회 정영순 회장님, 최 빅토리아 소설작가님, 국악신문 기미양 대표님을 비롯해 여러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글을 투고해주시길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 신문에 후원 차원에서 수십년간 광고를 실어주시는 '라직스'치과병원 전용식 원장님, <1+2>가구공장의 이용길 사장님, 부탁할 때마다 신문 수정에 큰 도움을 주시는 김민정 작가님, 김미경 선생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신문 카페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정성훈 피디님, 항상 협력하는 '아리랑.루'사이트 운영자인 신 드미트리 작가님, 늘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산 고향마을 노인회 주춘훈 회장님, 한국에서 우리 한인족지를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계시는 설운창 박사님, 이정홍 교수님, 서재길 교수님께서 배푸시는 따뜻한 후원에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고마운 분들이 새고려신문과 인연을 이어가며 새로이 다가오는 미래의 사건과 행사에 공감해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응원과 후원으로 신문은 장수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신문을 응원하는 많은 사할린한인단체들에도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새고려신문은 앞으로도 신뢰받는 뉴스를 전달하고, 한인족의 글과 열, 문화를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새고려신문사 배 빅토리아 올림

### 존경하는 사할린과 쿠릴열도 주민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온 마음으로 좋아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적과 선물과 인간적인 온정이 오고 가는 시기입니다.

다가오는 새해와 성탄절을 맞아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축하드립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우리는 우리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분과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석유, 가스 및 농산업 두 개의 산업단지를 건설했고, 코르사코브 항구의 현대화 작업에 착수했으며, 사할린 지역의 청년들에게는 지역에서 직접 의학과 기계학, 정보공학, 연극예술 분야를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수천 명의 주민들이 노후주택에서 벗어나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또한 특수군사작전 참전자들과 그들의 가정을 돕고 있습니다.

조국에 대한 사랑과, 더 나은 삶을 위해, 그리고 사할린과 쿠릴열도에 있는 우리의 자녀와 손주들의 복된 미래를 보장해주기 위한 목적이 우리를 연합하게 합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할린주의 모든 주민들께서 오는 신년 연휴에 잘 쉬시며, 오랫동안 선물을 기다리던 아이들의 기쁨으로 마음을 따뜻하게 하시고, 부모님과 사랑하는 분들에게 따뜻하고, 부드러운 인사를 나누시며, 가까운 친우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면서 새로운 성취를 위한 힘을 얻으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사할린 지역과 위대한 러시아를 위합니다!

친애하는 주민 여러분, 내년에는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소망이 이뤄지는 해가 되시길 바라며, 행복하시고, 강건하시며, 사랑과 번영이 넘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와 성탄절을 축하드립니다!

발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

### 신년 인사말

존경하는 사할린 동포 여러분!

다 사 다 난 했던 2024년이 저물고 2025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를 되돌아 보면, 복잡한 한반도 정세와 국제관계의 변화 및 세계 경제의 불안정한 상황 등으로 인해 사할린 동포여러분들께서도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할린 동포사회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우리는 어려운 시기에도 항상 단결과 인내심으로 함께 극복해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한민족의 정체성과 전통을 자랑스러워하며, 이를 유지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한민족의 자부심을 가지고 올 한해 동안 힘들고 마음 아팠던 일은 모두 잊어버리고 가족과 이웃들과 함께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사할린 동포 여러분!

2025년에도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와 도전이 예상됩니다. 저희 출장소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새해에는 어떤 일을 해야 할 지



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우선, 2024년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 대상자 입국 지원 및 2025년 영주귀국 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동포 1세대 어르신 방문 등을 통

해 동포 여러분들을 직접 찾아 뵈도록 하겠습니다. 동포사회 전체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항상 동포사회와 소통하여 동포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살펴나갈 것입니다. 동포 여러분들도 지혜를 모아 동포사회가 다시 화합하고 발전해 나가는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을사년은 뱀의 해로서 지혜, 통찰력, 지속적인 발전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새해에도 우리 한민족이 지혜를 모아 다시 화합하고 발전하는 동포사회가 되기를 바라며 2만 4천여 사할린 동포분들과 한국에 거주하시는 4천여 사할린 출신 한인동포분들의 가정에 화목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또한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유즈노사할린스크대한민국 출장소장 박상태 드림

# <올해는 어떤 해였고, 내년에 바라는 바는?>

연말이면 전통적으로 <올해는 어떤 해였고, 내년에 바라는 바는?>란 질문을 던져 이번에는 문화, 교육 및 스포츠 분야에서 활동하는 분들로부터 답변을 들었다.

## 신 율리아, '에트노스' 아동예술학교 한민족문화예술과 과장(49세):

한 해 동안 우리 학생들은 78개의 공연과 10개의 경쟁대회에 참여했는데 그중 가장 규모가 큰 행사는 음력 설날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된 '목소리(The Voice)' 쇼와 '단오 명절' 공연 발표입니다. 공연 발표의 경우엔 우리 한민족문화예술과의 모든 학생들이 참여한 무대였습니다.



올해 '미래'타악기 팀은 블라디보스토크 국제 콩쿠르 '세대'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의 '빛울림'타악기 앙상블이 유즈노사할린스크 중앙아동음악학교의 '브라보'관악단과 합연하여 이르쿠츠크에서 진행된 '바이칼 국제 관악기 총회'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학교의 '개나리'무용단과 '에너지'타악기 팀이 한국 남도 국악원(진도)에서 유익한 연수를 받았고, 또한 이 두 팀은 제주시에 진행된 <2024 해외동포 청소년 문화예술교류캠프 - 따로 또 같이>에 참여하여 그 일환으로 제주도 여러 행사장에서 공연을 하였습니다. 정말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희망'무용단은 올해 하바롭스크 '상상게임' 국제 경연에도 참가하여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올해도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고생이 많으셨고, 관객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한민족문화예술과는 3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관련 행사,

공연 등을 기획하는 중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조성용 사할린 동포 화가(64세):

제가 은퇴하고 거의 창작활동에만 집중했어요. 올해는 저에게 영감을 많이 안겨주는 해였습니다. 작년 말에는 바이칼, 올해는 블라고웨센스크와 중국 하이허시를 방문한 후 많은 에너지를 받아 그 주제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할린 액화천 연가스 공장 주제로도 여러 작품을 그렸지요.



올해 '2024 사할린 아팔리나'미술경연대회에서 '우수 풍경화'상을 받기도 했고 여러 전시 기획에도 참여했어요.

지난 11월에 고려인·한인 러시아로 이주 160주년 기념 행사 일환으로 아르좁시에서 열린 예술전에 갔었는데 이에 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일본, 한국에서 온 미술가들이 참여하고 작품 5점씩 총 100점을 출품했더군요. 축제 5일간 동안 많은 교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 2월에는 제가 65세 기념 개인전시회를 엽니다. 오십시오.

다가오는 한 해, 모든 독자들에게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 도카(이) 안톤, 사할린 '영화여가'기관 음향감독, 영화감독(40세):

2024년은 창작면에서 저에게는 매우 효과적인 한 해였습니다. 제가 친구인 하 세르게이와 함께 2023년 8월에 시작한 프로젝트에 한 해 동안 몰두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그 전에 몇 가지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는데 이번에는 사할린한인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영화제작을 하

는 것이 본업이 아니어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 동안 많은 사할린 한인사회계의 대표적인 인물들과 인터뷰를 찍었고, 사할린에서만 아니라 한국에 계시는 분들도 찍었습니다. 특히, 사할린한인 역사에 이름을 남긴 박노학 선생님의 아드님 박찬규 씨를 취재할 수 있었습니다. 이분 덕분에 사할린한인들의 편지가 일 본을 통해 한국 가족, 친척들에게 전달되었죠. 이 두 분은 사할린한인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한국 가족과 연락이 끊긴 사할린한인들은 이 두 분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만 해도 암담한 상황이었습니다.

내년에는 다큐멘터리 제작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본격적인 촬영은 3월에 끝낼 계획이고, 다큐멘터리의 데모 버전을 우선 진 율리아 박사에게 선보일 생각입니다. 그분이 사할린한인 연구가로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기록물에 관한 작업이 많아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사할린역사고문서기록원도 찾아가고 새고려신문사에 소장하는 사진도 촬영하고 싶습니다.

또한 자막을 위한 영어와 한국어 번역 작업도 필요합니다. 이것도 작업의 상당한 부분이죠. 이 영화를 한국과 일본에 상영할 계획입니다.

영화관에서 이 다큐멘터리를 상영할 경우 꼭 개봉을 위한 증서도 필요한데 이는 초여름에 할 계획입니다.

여름 말에 잠정적으로 첫 상영을 진행할 예정이고, 우선 예고편을 공개하고, 현지 영화관에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작품을 보러 오시길 바랍니다.

## 김 제니스, 사할린 태권도 대표팀 총감독(43세):

스포츠 결과를 보면 2024년이 좋은 해였습니다. 제가 직접 훈련시키는 선수들을 이야기 하면 올해 4명의 선수가 큰 대회에서 메달을 따

냈습니다. 크랍첸코 예브게니는 러시아 스파르타키아드에서 동메달을 받았고, 김 아르쭰은 러시아 선수권대회 청년 그룹에서 은메달을 따서 러시아 대표



팀에 들어갔습니다. 벨라예와 빅토리아는 '아시아 아이들'국제 게임에서 은메달 따냈고, 김 이고리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러시아 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올해 파리 올림픽대회에 러시아 태권도 선수들이 참가하지 못했지만 러시아 심판은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 올림픽대회는 선수나, 사범이나, 심판에게는 스포츠에서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올림픽 3년 전에 경쟁을 통해 유럽,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아시아 - 5대륙별 우수 심판 선정이 있었고 이들 중 우수 심판 58명을 뽑았습니다. 선정 최종 명단에는 26명만 올랐는데 그중 13명은 여성 심판, 13명은 남성 심판입니다. 제가 올림픽 심판으로 선정된 것은 정말 영광입니다.

이번 올림픽대회는 좀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2020-2021년 일본 올림픽은 관객 없이 진행되었으니 응원자가 있는 경기 차이가 많이 나죠. 태권도 같은 경우 파리 올림픽 경기 입장권이 경기 1년 전에 매진되었습니다. 실내에는 1만 명이 입장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제가 1등을 위한 튀니지와 이란 선수 (80kg 이하)간 최종 경기, 그리고 3등을 두고 승부를 겨루는 콜디아부아르 및 멕시코 선수(80kg 이상) 경기의 중앙 심판을 보게 되었습니다.

올림픽은 정말 잊을 수 없는 감동과 경험입니다.

내년에도 선수들의 좋은 성과를 기대하고, 저 스스로도 성장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배순신 기자 적었음)

## 이 모 저 모

### 유즈노사할린스크, 얼음 조각상 전시회 개장

유즈노사할린스크 가가린 시공원에서 <크리스탈 전람회> 제 7회 얼음 조각상 전시회가 성대하게 개장되었다고 시 공원 측이 전했다.

이 행사는 '소계쯔' 국제 꽃꽂이 교사협회 회원인 알렉산드라 쿠드라쇼와의 발의로 주최되었다. 전시회는 놀랍도록 아름다웠다. 얼음 조각상들은 자신만의 이야기를 하는 듯하고, 관람객들에게 조각상 제작의 비밀을 생각하게 하며, 어떻게 조각가들이 얼어붙은 재료를 감정과 생각이 체현된 형태로 표현했는지에 대한 비밀을 간직한 듯했다. 얼음 조각상은 누구나 와서 관람할 수 있다.

###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ткрылась выставка ледовых картин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на территории городского парка имени Гагарина в торжественной обстановке открылась седьмая выставка ледовых картин «Хрустальный вернисаж».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городск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Идейным вдохновителем выступила член Международной ассоциации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икебаны «Согецу» Александра Кудряшева. Выставка получилась удивительно красивой. Ледяные картины будто рассказывают свою историю, и заставляют зрителя задуматься о секретах их изготовления, они словно хранят тайны того, как художники облекали замёрзший материал в формы, олицетворяющие чувства и мысли. Посмотреть ее могут все желающие.

### 주지사, 두 명의 사할린 어린이들의 새해 소망 이뤄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가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조성된 때해 <소원의 울카> 자선행사에 참여했다. 국무회의가 시작되기 전 사할린 주지사는 새해 울카에서 아이들의 소원이

담긴 2개의 구슬을 떼었다고 자신의 텔레그램을 통해 전했다.

2개 소원의 구슬의 주인공인 예고르(12세)에게는 오랫동안 기다리던 자전거를, 노워트로이츠크에 마을에 사는 다리나(4세)에게는 튜브 눈썰매를 선사할 예정이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아이들에게 기쁨과 마법의 새해를 선사하기 위해 이들의 소원을 꼭 이뤄주겠다."고 덧붙였다.

### Губернатор исполнит новогодние желания двух юных сахалинцев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в ежегодной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ой акции «Елка желаний», которая состоялась в Большом Кремлевском дворце. Перед началом заседания Госсовета глава региона снял с новогодней елки два шара с желаниями детей. Об этом он сообщил в своем Telegram-канале.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дарит двенадцатилетнему Егору долгожданный велосипед, а четырехлетней Дарине из Новотроицкого — тюбинг.

«Обязательно исполню их желания, чтобы подарить детям радость и волшебство новогоднего праздника»,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사할린의 치어리더, 러.중 치어리딩 대회에서 5개 메달 획득

12월 23일 사할린의 치어리더들이 러.중 국제 치어리딩 경기에서 5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경기가 중국 하얼빈에서 개최된 가운데 러시아 연방과 중국의 105개 클럽에서 1200여 명이 경기에 참가했다고 지역 스포츠부가 전했다.

경기에서 사할린 대표 치어리더들이 러시아의 명예를 지켜주었다.

경기 결과 사할린의 치어리더선수들이 압도적인 우승을 거머쥔 가운데 남녀 치어-재즈 더블 종목에서 엘비라 바라노와와 루슬라나 자모타예와르가 금메달을 획득, 여자 치어-재즈 더블 종목에서는 1위를 마르가리타 부틸리나와 율리야나 콜레스니크가 차지했고, 2위는 소피아 나폴스키흐와 마리아 예르쇼와가 차지했다.

성인 연령별 경기 치어-힙합 더블 종목에서는 밀라나 테렌치예와와 다니엘라 보야로와가 우승을 차지했고, 이에 여자 선수들 중 율리야나 콜레스니크와 알레리야 샤로이키나가 리더가 되었다.

### Сахалинские чир спортсменки выиграли 5 медалей

23 декабря Сахалинские спортсменки завоевали пять медалей Китайско-Российски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соревнований по чир спорту. Соревнования прошли в китайском городе Харбин и собрали 1200 участников в составе 105 клубов из РФ и КНР,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спорта.

Честь России на турнире защищали спортсменки сборно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езультатами соревнований стала абсолютная победа островных спортсменок.

В чир-джаз-двойке среди мужчин и женщин "золото" завоевали Эльвира Баранова и Руслана Замотаева. Первое место среди девушек в дисциплине "чир-джаз-двойка" заняли Маргарита Будылина и Ульяна Колесник, второе — София Напольских и Мария Ершова.

В дисциплине "чир-хип-хоп-двойка" во взрослой возрастной категории победу одержали Милана Терентьева и Даниэла Боярова. Здесь же среди девушек лидерами стали Ульяна Колесник и Валерия Шаройкина.

### <사할린 6.0>로봇기술챔피언대회, 사할린에서 개최

내년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농산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할린 6.0>로봇기술대회 결승전이 개최된다고 사할린주 교육부 아나스타시야 키크테와 장관이 전했다. 대회에는 4세부터 22세의 학생들과 대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다. 이번 주제는 <풍성한 수확>이다. 대회 참가자들은 농산업 기업들의 경험을 이용한 수확, 저장 및 운송에 따른 문제들을 해결하게 된다. 올해엔 크라스노야르스크에서 로봇기술대회가 개최되었다.

참가 학생들은 오는 새로운 로봇기술대회의 참가를 고대하고 있다.

(8면에 계속)

# 새고려신문 75주년 기념 문예콩쿠르 수상작 나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전호의 계속)

'집승은 죽으면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며 말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물고기를 잡아서 주시는 부모님이 아니라 고기를 잡으라고 낚싯대를 주시는 부모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의 잘 됨을 자랑하는 부모님이 아니라 자식들이 부모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하시는 말씀은 저희 부모님은 법이 없이도 살 수 있는 분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너희들 자랑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웃 사람들이 해야 한다"고 항상 잘하라고 하셨습니다.

속담도 여러가지 알려주셨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쉬운 일도 협력하면 효과적이라는 말입니다. 문전 나그네 혼연대접(欣然待接:기쁜 마음으로 잘 대접함)은 문 밖에 손님이 오면 신분을 가리지 말고 친절히 대접하라는 말입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강물을 흐린다.'는 잘못된 자식 하나가 있으면 온 집안을 망신시킨다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가 깊고 유익한 속담들을 통해 저희들의 교양도 교육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도 저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농사철이면 농사를 지으시고 직장 생활을 하시고, 겨울이면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도 저희에게 한문풀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학교에서는 한글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1989년에 적십자사가 우리 사할린에 와서 부모님들을 모두 한국 비행기로 공짜로 한 달간 여행을 시켜드린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들 좋다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면 어머니의 연세가 79세이셨고, 이미 5년 전부터 병을 앓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심장병으로 숨이 가빠 바깥에 다니시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비행기를 타고 그 먼 한국까지 가실 수 있으실까? 걱정도 되며 그래도 그토록 오래 기다린 아들이 있는데... 저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웃의 한 아주머니가 꼭 가서서 아들을 만나보시라고 했습니다. 휠체어가 있으니 걱정 말라고 하셨습니다. 한국에서 아들이 얼마나 기다

1위, 김경순, 73세,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리고 있을지 생각하라며 말합니다.

결국 1990년에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부모님은 50년 동안 그리워하던 아들을 만나보시고, 그토록 그리워하셨던 고향도 가보시고... 형제들도 만나시고, 구경도 잘 하셨습니다. 이런 경사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한 달 동안 한국의 큰 오빠와 올케가 아주 잘 모셔주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세상에서 처음 한국 여기저기를 구경하시고, 비행기도 처음 타 보시며 천국이 따로 없었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평생에 참으로 행복한 한 달이었습니다. 한국을 방문하시고 오셔서 얼마나 행복해 하셨는지 모릅니다.

"내가 큰 벼슬을 하고 온 사람 같다. 학교 교장 선생님이 내 손을 잡고 악수를 하시며, '아드님 훌륭히 잘 키우셨습니다.'라고 하시더라."하시며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큰오빠는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부모님을 50년 만에 만났다고 큰 잔치를 열고, 친척들, 이웃들, 선생님들을 모두 초대하셨습니다. 한 달은 빨리 지나가고 다시 이별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영영 이별이었습니다...

왜냐면 어머니는 돌아오시고 두 달 후에 세상을 떠셨습니다. 자식인 저로서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왕 한국에 가신 것 왜 고향에서 그리운 아들과 같이 살지 못하시고 또 이별인가? 하고 말합니다. 이제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다시는 큰오빠와 만나지 못하시니 말입니다.

아버님 역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매일 어머니를 그리워하시다 일년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두 분은 한 쌍의 비둘기처럼 사셨습니다. 금슬이 아주 좋으셨습니다. 부모님은 결국 한국으로 영주귀국을 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저에게 아주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호강하시다 돌아가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날엔 한국에서 부모님이 고생만 하셨는데, 지금이라면 한국에서 호강만 하셨을 텐데... 결국 한국에 가지 못하시고 돌아가버리셨습니다. 이렇게 불쌍한 분들은 꼭 호강을 하시다 돌아가셔야 옳는데 말입니다...

어디에도 우리 부모님처럼 서로에게 큰 소리 한 번 안치고, 착하시고, 부지런하시며, 남을 위해 헌신하신 사람들은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재외동포청, 사할린동포에게 연말 위문품 전달

이상덕 청장,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 찾아 사할린동포 위로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12월 20일 오후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있는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을 찾아 사할린동포들을 위로하고 연말 위문품을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 시설에는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 1세 중 질병과 노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78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전달식에는 복지회관 임소자 및 직원 등 약 50명이 참석했다.

이상덕 청장은 이날 전달식에서 "재외동포청은 영주귀국 사할린동포가 고국에서 잘 정착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과거 역사적 아픔을 겪은 분들을 끝까지 돌봐드리는 것이 우리 정부의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청장은 요양실, 이미용실, 물리치료실 등 복지회관 시설을 둘러보며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임소자의 거주환경을 살폈다.

한편, 재외동포청은 연말을 맞아 전국 28



사할린동포 이영익 어르신 요양실 방문한 이상덕 재외동포청장

개 지역에 거주하는 3천174명의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에게 우편배송으로 위문품(생필품 세트)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인천 연수구와 경북 고령에 있는 사할린동포 임소시설 2곳에 옮겨올 한과 대비를 위해 방한용품 등을 기증했다.

(재외동포청 제공)

## "세상에 하나뿐인 달력" 사할린 도착

KIN(지구촌동포연대)이하 KIN)는, 사할린 동포들에게 드리는 '세상에 하나뿐인 달력 2024'가 12월 17일 사할린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세상에 하나뿐인 달력'은 사할린 동포들을 알리기 위해 온라인 홍보와 모금을 통해 제작해 왔으며, 올해는 댓글응원과 공유, 직접기부 등으로 3,074명이 참여했고, 총 1천645부를 제작하였다. 사할린현지에는 벽걸이(1,050), 탁상용(375) 총 1,425부를 보내 현지 동포들에게 전달되었다. 그리고 한국에 영주귀국한 동포들 전 세대에 배포하진 못하고 지역 회장과 인친 사할린동포 복지관에 보냈다.

KIN의 최상구 대표에 따르면 제작과 운송에 필요한 재정은 카카오 같이가치의 온라인 모금액과, 단체 통장으로 직접후원, 재외동포청 지원, "이주민센터 친구"의 지정기탁금으로 충당되었다. 특히 일본의 "사할린에 남겨진 코리안을 찾아가는 모임"에서는 올해도 모금을 전달하였고, 작년에는 기업후원이 중단되어 어려웠었는데, 올해는 "이주민센터 친구"를 통한 후원이 이루어져 재정문제가 해소되었다.

"이주민센터 친구"를 통한 후원은 사할린 동포 법률지원을 진행한 조영관변호사의 숨은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KIN은 2013년부터 사할린동포들을 위해 해마다 '세상에 하나뿐인 달력'을 제작해 왔다.

2025년 KIN은 화우공익재단의 후원으로 사할린동포 정착지원 방안 대한 연구를 실시한다. 최상구 대표는 "사실상 영주귀국이후 안정적인 정착프로그램이 부재한 상태이고, 이미 3년이 지나버렸지만 아직도 국적취득 등이 마무리 안되는 등 여러 개선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일본의 사례 등을 검토하면 현재 영주귀국 동포들에게 필요한 정책들을 제안하는 연구를 진행한다. 사할린동포법에 따라 내년에는 실태조사도 이루어질 만큼 정책수립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유즈노사할린스크, 동짓날 행사 개최

지난 12월 21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 시티몰 쇼핑센터 3층 행사장에서 '사할린한인'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회장 천영곤)와 '한글'창작회(회장 배영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양력 동지(冬至: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날) 행사가 열렸다.

이날 수많은 시민들이 동짓날을 맞아 '사할린한인'시한인회가 넉넉히 준비한 맛있는 동지팔죽 시식을 해보며, 한민족의 전통과 풍습을 알리는 여러 활동교실에 참여하여 다양한 체험을 해볼 수 있었다. 또한 한복도 입어보고 3대가족을 대표하는 할머니·어머니·손주가 함께 한미 녹차를 마시면서 배영희 '한글'창작회 회장의 다도(茶道)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이날 관객들은 동짓날 전통에 따라 악귀를 내쫓는 부적 카드를 만들어 보기도 했다. 뱀을 한자로 써서 거꾸로 카드에 붙여 그림으로 장식해보는 체험이 흥미를 돋우었고, 카드에 동지 흥말(붉은 버선)을 그리는 '한글'창작회의 활동교실도 인기가 많았다.

동짓날 대중행사가 시민들에게 흥미를 유발한 가운데 많은 관람객들이 모여들었다

\* 동지는 1년을 24개로 구분한 24절기 가운데 스물두 번째 절기이다. 24절기의 대한과 소한 사이에 있으며 양력 12월 22일경으로 음력의 11월에 들어 있다. 24절기의 대한과 소한 사이에 있으며 양력 12월 22일경으로 음력의 11월에 들어 있다. 고대인들은 이날을 태양이 죽음으로부터 부활하는 날로 생각하여 축제를 벌이고 태양신에 대한 제사를 올렸으며 이러



한 전통은 많은 세시풍속을 낳았다. 그중에서도 동지에 먹는 팔죽은 팔이 양의색인 붉은색을 띠어 음기를 쫓는 효과가 있다고 믿는 민속신앙으로 발전하여 가정과 관청에서 널리 활용되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취재: 글/배순신 기자, 사진/이예식 기자)

## 사할린한인연합회, 동짓날 선물 드려

사할린한인연합회(회장 김홍지)의 청년부 젊은이들이 지난 22일(일) 100세를 맞으신 이순귀 할머니를 비롯해 유즈노사할린스크의 8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찾아뵙어 인사하며 팔죽과 2종류의 떡, 쌀 등을 새해맞이 선물로 드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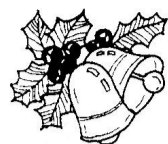
1세대 동포 어르신들은 기쁘게 반기시며 젊은 세대



를 따뜻하게 맞이했다고 전해졌다.

그 전날에는 연합회 측에서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회장 림종환)에 모인 노인정 할머니들을 위해 팔죽을 쑤어 맛난 식사를 함께 했다.

(본사 기자) (사진: 사할린한인연합회 제공)



# С наступающим Новым Годом!



## Гадалки, шаманы, гамбургеры и спецназ Расследование раскрывает невероятный паноптикум введения военного положения в Южной Корее

Введение в ночь с 3 на 4 декабря президентом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Юн Сок Ёлем военного положения в такой благополучной стране вызвало шок и недоумение во всем мире. Но еще больше были удивлены сами корейцы, большинство из которых, если и знало про что-то подобное, то скорее из учебников истории или застало еще совсем маленькими - в предыдущий раз военное положение в Южной Корее объявляли 45 лет назад.

Потому жесткая реакция на такие "выкрутасы" президента для Кореи объяснима - Юну объявлен импичмент и высока вероятность, что дело дойдет до окончательного снятия его с поста главы государства. Стартовавшее по горячим следам расследование обстоятельств всей ситуации вообще временами напоминает коллекцию чего-то невероятного, сюрреалистичного и временами дикого - по крайней мере по меркам Страны утренней свежести с ее имиджем суперсовреме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продвинутого" общества, К-Ро-ра и вылизанных улиц с небоскребами.

### Опять шаманы?

Напомним, что относительно недавно - в 2017 году - в Южной Корее другой лидер Пак Кын Хе "схлопотала" импичмент и в итоге была снята с поста, а затем получила тюремный срок. Тогда одним из ключевых пунктов обвинения был тезис о том, что в ее окружении была Чхве Сун Силь, которая оказывала влияние на политические и экономические решения Пак. Чхве же называли "советницей-шаманкой", а некоторые СМИ утверждали, что Пак Кын Хе даже 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проводила шаманские ритуалы. Последнее осталось под вопросом, а вот связи Чхве с загадочным миром духов и привидений оказались не просто слухами.

Как это бы странно ни звучало, но стартовавшее сразу после отмены военного положения расследование стало выявлять в окружении президента Юн Сок Ёля опять шаманов, гадалок и прочих поставщиков "опиума для народа". Начать можно с медиума-прорицателя 72-летнего Чхон Гона. У него, кстати, характерная для ег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внешность - такой седовласый старец с длинной белой бородой, усам, спокойным лицом, постоянно ходит в белых одеждах. О его особых связях с президентом Юном и первой леди Ким Гон Хи известно давно. Считается, что именно он в бытность Юна генеральным прокурором посоветовал ему "поработать побольше для народа" и выдвинуть свою кандидатуру на пост президента.

Многие корейцы также отметили, что у Юна во время предвыборных дебатов на ладони был написан иероглиф "ван", что значит "король" - это как раз знак, которые шаманы и предсказатели Кореи используют на удачу и в своих обрядах. И опять же - это было сделано по совету Чхон Гона.

Далее идет Чон Сон Бэ, который взял религиозное имя "Кончжонпопса". Он работал советником в предвыборном штабе Юн Сок Ёля, был также консультантом в компании, которая была создана супругой президента Юна Ким Гон Хи. СМИ утверждают, что Чон регулярно общался с президентской четой и за деньгами пытался продвигать политиков правящего лагеря. В итоге 17 декабря этого года Чон был арестован по обвинениям

в нарушении Закона о финансировании полит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Третьим в этом списке можно назвать политического брокера Мён Тхэ Гюна, который утверждает, что может предсказывать будущее. Он особенно активно общался с женой президента Кореи Ким Гон Хи, но и Юн Сок Ёль хорошо его знал. Деятельность "предсказателя" Мён была схожа с Чоном - содействие в продвижении нужных людей, используя свои связи, включая знакомство с первой леди.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в отношении него ведется следствие.

Кульминацией же всего это списка является Но Сан Вон, который вплоть до 2018 г. был главой Командования разведки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ороны. Согласно расследованию обстоятельств введения военного положения, выяснилось, что Но, хотя и был формально в статусе гражданского лица, но именно он в деталях распланировал всё это, он же организовал "гамбургерные встречи" (о них чуть ниже), где обсуждались планы введения военного положения, и к нему прислушались действующий Командующий разведки МО Мун Сан Хо и прочие высокопоставленные офицеры военного ведомства Кореи.

Про Муна известно, что в 2018 г. он был снят со скандалом со своего влиятельного поста за домогательства к подчиненной. После увольнения он открыл в пригороде Сеула Ансане "дом предсказаний", проводя ритуалы гадания, обещая узнать будущее. По словам хорошо знающих его людей, Но еще со времен военной академии интересовался шаманизмом, "наукой предсказания", мистикой. Общение с потусторонними силами он особо не афишировал, пока был офицером, однако превратил в свою постоянную работу после вынужденного ухода из Минобороны.

По словам следователей, которые арестовали Но Сан Вона по обвинениям в планировании введения военного положения, Но даже в ходе допросов понимал сотрудников вопросами об их дате рождения, имени, обещая предсказать будущее и узнать характер. Подчеркнем еще раз: именно Но Сан Вон считается главным "мозговым центром" идеи о военном положении. В недавно обнаруженной следователями его записной книжке найдены подробные описания тех действий, которые стоит предпринять, кого арестовывать и прочие подробности.

О влиятельности Но говорит и тот факт, что для общения с ним действующий начальник Командования разведки МО Мун Сан Хо и прочие высокопоставленные офицеры потратили более полутора часов на поездку на машине, чтобы встретиться там, где было удобно Но - возле его дома.

### Военное положение и аресты политиков планировали в гамбургерных "Лоттерии"

Другой интересной особенностью процесса подготовки к введению военного положения можно назвать "гамбургерные встречи". 1 и 3 декабря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уже упомянутого Но Сан Вона прошли две встречи с действующими и бывшими сотрудниками Командования разведки и Следстве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Минобороны.

(Продолжение на 5-ой странице)

## Праздник Тончжи прошел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День зимнего солнцестояния Тончжи прошел в ТРЦ «Сити Молл» г.Южно-Сахалинска. 21 декабря с традициями этого праздника познакомили гостей МООСК «Сахалин Ханин» (председатель Чон Алексей) и Творческое объединение «Хангыль» (руководитель Пе Анжела).

Главным атрибутом мероприятия стала дегустация обрядового блюда «Пхатчук», приготовленного активом Сахалин Ханин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заместителя председателя Ан Галины. Вкусная сладкая каша вызвала восторг у взрослых и детей. Секретами приготовления и обрядами, связанными с этим блюдом, поделились женщины-активисты.

«Готовите ли вы это блюдо дома?», «Какие ассоциации вызывает это блюдо у вас?», «Знаете ли вы, что означает название блюда?» - вот несколько вопросов, на которые отвечали гости праздника.

«Дома не готовим, но попробовав кашу, вспомнила, что ее в детстве готовила бабушка», - поделилась Светлана К. «Да, это каша с фасолью, готовила мама, пока была жива на праздник, но не знал, что именно на праздник Тончжи»,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Сергей.

Параллельно с дегустацией на площадках творческ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Хангыль» царил оживление, творческие мастер-классы пользовались популярностью не только у детей, но и взрослых.

Согласно традициям этого праздника, участники готовили Тончжи хонмаль в виде открытки, а также и обереги с переворотным



иероглифом «Змея», отдавая дань традиции желания уберечь свой дом от злого духа.

Местом притяжения стала площадка «Гостиная семьи трех поколений», гости которой узнали о правилах этикета за столом, тонкостях сервировки чайной церемонии и многих других интересных фактах из жизни корейцев.

Праздник прошел масштабно, красочно и весело!

Анжела Пе  
Фото Ли Е Сика

## Ансамбли школы Чхве Джехена побывали на гастролях в Корее и Китае

С 7 по 15 декабря 2024 года состоялась гастроли ансамбля танца «Ариран», ансамбля танца «Радуга» и ансамбля корейских барабанов «Хваран» школы имени Чхве Джехена (Уссурийск)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и КНР.

Проект «Песни времен года» был запущен еще в сентябре этого года (Уссурийск, Находка, Артем) и завершился в г. Иксане, г. Сеуле (Парламент)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в г. Харбине (КНР).

Для детей это была волшебная и незабываемая поездка, а для нас, взрослых, наполненная встречей старых и обретением новых друзей, обещающих перспективу развити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На концерте, который состоялся в Парламенте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11 декабря, присутствовали депутаты Парламента Кореи, обществен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Школа имени Чхве Джехена вручила 8 благодарностей в



виде стеклянных многогранников организаторам данной поездки.

Артистов повсюду тепло встречали. После концерта в Парламенте дети побывали среди участников митинга. Одним словом, наши ансамбли заставляли сердца зрителей быть на одной волне – волне мира и дружбы.

Валерия Ким,  
директор школы  
имени Чхве Джехена

## РООСК – призер в номинации «Общественное признание»

В рамках торжественной церемонии награждения победителей ежегодного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конкурса «Благотворитель город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и интерактивного проекта «Успех года» по итогам 2024 года, региональ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была удостоена приза в номинации «Общественное призна-

ние», сообщает телеграм-канал «Корейский телеграф».

Церемония прошла в конгресс-холле «Столица» и была отмечена присутствием неравнодушных граждан и компаний, которым были вручены награды губернатором Валерием Лимаренко и мэром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ергеем Надсадным

## Пхатчук в подарок!

Молодежное отделение Ассоциац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АСК) в День зимнего солнцестояния (동짓날) посетила представитель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 пожеланиями здоровья и долгих лет жизни они вручили бабушкам и дедушкам приготовленную активистами АСК пхатчук (традиционную кашу из красной фасоли), а также тток и рис, подарив прекрасное настроение.

Также активисты АСК 21 декабря посетили Клуб пожилых людей в Южно-Саха-

линской мест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для праздничного обеда они принесли пхатчук, тток (рисовые сладости) и салаты.

Наш корр.  
Фото  
предоставлено  
АСК.





# Счастья в Новом Году!



## Предварительные слушания по импичменту Юн Сок Ёлю пройдут 27 декабря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суд проведёт предварительные слушания по делу об импичменте президенту страны Юн Сок Ёлю 27 декабря, как и планировалось ранее. Как сообщи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суда, 23 декабря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считать уведомление об импичменте вручённым Юн Сок Ёлю независимо от того, получил он его лично или нет. Документ был доставлен почтой в резиденцию Юн Сок Ёля 20 декабря.

## РК и США договорились возобновить контакты в полном объёме

Сеул и Вашингтон в полном объёме возобновят контакты, приостановленные из-за объявления в РК чрезвычайного положения и начала процедуры импичмента президенту Юн Сок Ёлю. Договорённость по этому поводу была достигнута в ходе встречи первого заместителя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К Ким Хон Гюна и помощника госсекретаря США Курта Кэмпбелла, состоявшейся 23 декабря в Вашингтоне. Это была первая личная встреча высокопоставленных дипломатов двух стран после начала политического кризиса в РК. Кэмпбелл отметил, что США сохраняют полное доверие к РК, выразив надежду на то, что партнёрство двух стран останется крепким. Он особо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в условиях, когда Хан Док Су исполняет обязанности президента, важно, чтобы страна успешно справлялась с возникающими вызовами. Ким Хон Гюн поблагодарил США за неизменную поддержку и доверие, подчеркнув, чт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Хан Док Су работает стабильно, и все политические процессы в стране проходят в рамках демократических процедур.

## С 20 декабря в РК объявлена эпидемия гриппа

С 20 декабря в РК объявлена эпидемия гриппа. Как сообщили в Корейском управлении по контролю и профилактике заболеваний,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е решение принято потому, что во вторую неделю декабря на каждую тысячу обращений к врачам с симптомами респираторных заболеваний приходилось 13,6 случая гриппа. Это на 5 случаев больше порога начала эпидемии, который установлен на зимний период 2024-2025 годов на уровне 8,6 случая на тысячу пациентов. Заболеваемость гриппом растёт во всех возрастных группах. Её максимальный уровень отмечен среди подростков 13-18 лет - 36,9 случая на тысячу заболевших. По словам медиков,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в РК распространён грипп типа А, для профилактики которого эффективна вакцина, применяемая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 В РК резко ухудшились потребительские настроения

По данным Банка Кореи, опубликованным 24 декабря, индекс потребительских настроений (CCSI) составил 88,4 пункта, что на 12,3 пункта меньше, чем в предыдущем месяце. Из-за политической нестабильности, связанной с введением чрезвычайного положения, и увеличения волатильности на финансовых рынках ухудшение потребительских настроений оказалось максимальным за 16 лет с октября 2008 года. Сам индекс достиг минимального значения за последние два года. CCSI рассчитывается на основе шести показателей: текущего уровня жизни, прогноза уровня жизни, прогноза доходов домохозяйств, прогноза потребительских расходов, оценки текуще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ситуации и прогноза будуще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ситуации. Показатель ниже ста указывает на преобладание пессимистических настроений над оптимистическими. Прогнозируемый уровень инфляции на следующий год, отражающий ожидания потребителей, составил 2,9%, увеличившись на 0,1%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едыдущим месяцем. CCSI был рассчитан на основании результатов опроса 2.500 домохозяйств, проведённого с 10 по 17 декабря по всей стране.

## Группа Stray Kids в шестой раз на первом месте в Billboard 200

Южнокорейская мужская группа Stray Kids в шестой раз заняла первое место в главном чарте альбомов Billboard 200 с альбомом Нор, который набрал 187 тысяч эквивалентных альбомных единиц в США. Ранее первое место в чарте занимали альбомы группы Oddinary и Maxident в 2022 году, 5-Star и Rock-Star в 2023 году и Ate в июле этого года. По количеству первых мест в чарте Billboard 200 группа Stray Kids сравнялась с BTS, Linkin Park и Dave Matthews Band. Billboard-200 оценивает самые популярные альбомы недели в США, измеряемые эквивалентными единицами, включая физические и цифровые продажи. 176 из 187 тысяч проданных альбомов Нор составила доля физических продаж. Название альбома имеет двойное значение - китайский иероглиф «гармония» и «хоп» из жанра хип-хоп музыки. Он состоит из 12 песен, включая хиты Walkin On Water, Bounce Back, U, а также сольные композиции, представленные во время последнего мирового турне группы.

RKI

## Гадалки, шаманы, гамбургеры и спецназ Расследование раскрывает невероятный паноптикум введения военного положения в Южной Корее

(Окончание. Начало на 4-ой странице)

Общее у этих встреч то, что они прошли в "Лоттерии" - корейском аналоге сетей ресторанов быстрого питания типа "McDonald's" или "Вкусно - и точка".

В ходе первой встречи Но с Мун Сан Хо и двумя другими сотрудниками Командования разведки утвердили подробный план введения военного положения, включая захват Центризбиркома и парламента, а в ходе второй речь, как предполагает следствие, шла уже о формировании специальных следственных групп из военных, которые должны были заняться допросом политиков, общественных деятелей и прочих лиц. Как уже было сказано, встречи прошли рядом с "домом для предсказаний" Но Сан Вона в Ансане.

Вопрос, зачем было вести весьма опасные разговоры в таких открытых местах, профессионалы объяснили достаточно просто: в подобных заведениях обычно достаточно много народа, шумно, а потому это существенно затрудняет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подслушивания. Есть также фактор нестандартности, так как по мнению непосвященных, вряд ли судьбы страны будут решаться в кафе или ресторанах быстрого питания. Корейские профессионалы же утверждают, что наоборот, уединенные и удобные для общения отдельные комнаты дорогих ресторанов - более уязвимы в плане безопасности, там гораздо проще устроить "прослушку".

### "Вы вообще кому военное положение доверили-то?!"

На днях влиятельное корейское издание "Чунан Ильбо" опубликовало развернутую статью, в которой подробно описан процесс расследования, данные о ключевых фигурах военного переворота и прочие подробности. Заголовок же напоминает "крик души корейца": "Предсказатель будущего, медиум, домуправляющий... Вы кому военное положение доверили-то?!!"

Речь идет о том, что с формальной и объективной точек зрения ключевые роли в процессе планирования военного положения в Южной Корее сыграли посторонние, гражданские люди, которые сейчас занимают деятельностью, очень далеко находящейся от сферы безопасности, армии. Но Сан Вон, как уже говорилось, уже шесть лет как уволен из минобороны и сейчас называет себя предсказателем. Также гражданским лицом является Ким Ён Гун - полковник в отставке и бывший руководитель Отдела расследований Следстве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минобороны. Еще одним "серым кардиналом" считают человека по фамилии Ян - домуправляющий арестованного министра обороны РК Ким Ён Хёна. Хотя роль Яна в деле конкретно планирования военного положения пока не подтверждена, но он доставлял многие важные личные сообщения, считаясь доверенным лицом главы военного ведомства. На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главным исполнителем идеи военного положения и человеком, который убедил президента Юна пойти на такой шаг, считается как раз министр обороны (уже бывший) Ким Ён Хён. Юн и Ким знако-

мы еще со школы...

В итоге "крик души" корейского журналиста понять можно: получается, что скандальный, шокирующий шаг в виде военного положения был спланирован формально посторонними людьми. Может быть они раньше когда-то и работали в военном ведомстве, но уволились оттуда достаточно давно. Впрочем, как видно, это не помешало им сохранить свое влияние - это особенно верно для Но Сан Вона, которого, похоже, слушался действующий Командующий военной разведки.

### И Северную Корею сюда до куч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фактор на протяжении политической истории Южной Кореи неоднократно оказывал влияние на расклад сил. Это касалось не только отношений собственно между Югом и Севером, но и чисто внутренней южнокорейской проблематики. Разные руководители Юга неоднократно использовали фактор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угрозы" для сплочения народа, а также для победы на выборах: если напомнить о "ракетно-ядерной угрозе" Пхеньяна и подкрепить это намеками об опасности провокаций КНДР, то южнокорейцы на выборах обычно голосовали в пользу консервативных "ястребов", а не настроенных на межкорейск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демократов. Впрочем, корейцы тоже достаточно быстро раскусили этот прием, и как минимум с середины 1990-х упоминания о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угрозе" воспринимали наоборот со скепсисом, считая уловкой "ястребов".

Однако, как выясняется, про возможность "задействовать КНДР" вспомнили и на этот раз. Следователи в "доме предсказаний" Но Сан Вона обнаружили записную книжку. В ней подробно расписано то, какие подразделения и как должны действовать, как надо устанавливать контроль над парламентом и прочие подробности. Также была упомянута возможность провоцирования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в районе спорных регионов акватории Желтого моря. Проведенную там морскую границу КНДР до сих пор не признает, а потому в тех местах регулярно случаются противостояния военных кораблей Юга и Севера. Несколько раз дело доходило до морских боев с убитыми и ранеными с обеих сторон. Следователи подчеркивают, что пока они не могут говорить, что в записной книжке Но есть лишь упоминание о подобном варианте, а доказательств, что реально планировалось спровоцировать стычки с КНДР, не обнаружено, по крайней мере пока. Тем не менее, сам подход и стиль действия Но Сан Вона - главного "архитектора" военного положения и по совместительству предсказателя будущего - это очень хорошо характеризует.

Стоит также отметить, что некоторы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ппозиции говорили также о планах заговорщиков использовать инциденты с направлением воздушных шаров из КНДР для формирования атмосферы напряженности на Юге. Это могло бы помочь объяснить необходимость экстренных действий со стороны политического и военного руководства Южной Кореи. Правда надо признать, что про воздушные

шары - это пока все на уровне спекуляций, а возможность "морских боев" уже была зафиксирована в записной книжке Но Сан Вона.

### "Я думал, такой сюр может быть только в Латинской Америке или Африке..."

В самом начале было сказано, что введение военного положения удивило, шокировало, стало полной неожиданностью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для самих жителей Южной Кореи. "В моем восприятии, военные перевороты было тем, что ассоциировалось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с нестабильностью в Африке, некоторых странах Латинской Америки, но у нас, в наше время... - такого я не мог вообразить никогда", - признался корреспонденту "РГ" бизнесмен по фамилии Ю. "Шаманы, гадалки, какие-то предсказатели будущего, встречи в гамбургерных, провоцирование Северной Кореи... - когда я читаю результаты предварительных расследований, то мне это напоминает какой-то сюр, попытку написать дешевый военный детектив на тему Кореи, в который невозможно было бы верить... Но правильно говорят: жизнь - лучший драматург... Мне стыдно, что все это подтверждается в случае с нашей страной, в подобной ситуации. Единственное радует, что люди это не приняли, вышли на демонстрации, спецназ не собирался штурмовать парламент всерьез, а потому все так быстро закончилось", - отметил собеседник.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появляющиеся практически каждый день новые удивительные откровения про введение военного положения вызывают у большинства корейцев две основные реакции - негодование и саркастический смех. Если говорить про второе, то уже появились предложения в сети ресторанов быстрого питания "Лоттерия", где проходили "гамбургерные встречи" заговорщиков, включить в меню "гамбургер военного положения", сет "сообразим переворот на четверых" (по числу участников встречи 1 декабря), картофель-фри "с новым вкусом военной авантюры".

Владелец же этого ресторана говорит, что его заведение стало пользоваться большой популярностью. "Народу стало приходиться больше, многие тут фотографируются, выкладывают фото в соцсети. Мы превратились в историческое место, не с самым, конечно, лучшим смыслом, но точно о нас знает теперь наверное вся страна, а также за рубежом", - иронически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в интервью местной газете владелец ресторана "Лоттерии" в Ансане.

"После всего того, что я узнал об этом военном положении, меня наверное уже сложно чем-то удивить... Хотя нет, боюсь, что мы еще узнаем много того, что не укладывается в голове. У нас же Dynamic Korea", - сказал с иронической улыбкой бизнесмен Юн, вспомнив старый туристический лозунг Южной Кореи, который позже превратился в символ того, что в этой стране время от времени происходит то, что совершенно невозможно предсказать и что абсолютно не укладывается в рамки доминирующего в мире о Корее имиджа.

Олег Кирьянов(РГ)



# 2025년



# 을사년

음력설  
1.29  
한식  
4.5  
단오  
5.31  
초복  
7.20  
중복  
7.30  
말복  
8.9  
추석  
10.6  
성탄절  
12.25

	1월 (음력 12-1월)					2월 (음력 1-2월)					3월 (음력 2-3월)				
월		6	13	20	27		3	10	17	24		3	10	17	24
화		7	14	21	28		4	11	18	25		4	11	18	25
수	1	8	15	22	29	5	12	19	26	5	12	19	26		
목	2	9	16	23	30	6	13	20	27	6	13	20	27		
금	3	10	17	24	31	7	14	21	28	7	14	21	28		
토	4	11	18	25	1	8	15	22	1	8	15	22			
일	5	12	19	26	2	9	16	23	2	9	16	23			
	4월 (음력 3-4월)					5월 (음력 4-5월)					6월 (음력 5-6월)				
월		7	14	21	28		5	12	19	26		2	9	16	23
화	1	8	15	22	29	6	13	20	27	3	10	17	24		
수	2	9	16	23	30	7	14	21	28	4	11	18	25		
목	3	10	17	24	1	8	15	22	29	5	12	19	26		
금	4	11	18	25	2	9	16	23	30	6	13	20	27		
토	5	12	19	26	3	10	17	24	31	7	14	21	28		
일	6	13	20	27	4	11	18	25	1	8	15	22			
	7월 (음력 6-6(운)월)					8월 (음력 6(운)-7월)					9월 (음력 7-8월)				
월		7	14	21	28		4	11	18	25	1	8	15	22	29
화	1	8	15	22	29	5	12	19	26	2	9	16	23	30	
수	2	9	16	23	30	6	13	20	27	3	10	17	24		
목	3	10	17	24	31	7	14	21	28	4	11	18	25		
금	4	11	18	25	1	8	15	22	29	5	12	19	26		
토	5	12	19	26	2	9	16	23	30	6	13	20	27		
일	6	13	20	27	3	10	17	24	31	7	14	21	28		
	10월 (음력 8-9월)					11월 (음력 9-10월)					12월 (음력 10-11월)				
월		6	13	20	27		3	10	17	24	1	8	15	22	29
화		7	14	21	28		4	11	18	25	2	9	16	23	30
수	1	8	15	22	29	5	12	19	26	3	10	17	24	31	
목	2	9	16	23	30	6	13	20	27	4	11	18	25		
금	3	10	17	24	31	7	14	21	28	5	12	19	26		
토	4	11	18	25	1	8	15	22	29	6	13	20	27		
일	5	12	19	26	2	9	16	23	30	7	14	21	28		

절기	소	대	입	우	경	춘	청	곡	입	소	망	하	소	대	입	처	백	추	한	상	입	소	대	동	
(양력)	월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11	11	12	12
	일	5	20	3	18	5	20	4	20	5	21	5	21	7	22	7	23	7	23	8	23	7	22	7	22



# 2025년 을사년 락별 운세: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세요

2025년은 을사년(乙巳年)으로, 십이지 중 '사(巳)'에 해당하는 해입니다. 을사년은 나무의 에너지와 뱀의 기운이 합쳐진 해로, 성장과 변화를 의미하며 새로운 도약과 기회를 상징합니다. 뱀의 해에는 결단력과 지혜가 중요해지고, 신중함과 계획적인 태도가 행운을 불러올 것입니다.

올 한 해에는 모든 락들이 자신의 목표와 방향을 재정비하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할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여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많을 것입니다. 건강과 인간관계, 재정 문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2025년, 락별로 어떤 운세와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쥐띠 (1948, 1960, 1972, 1984, 1996, 2008, 2020년생)

2025년은 쥐띠에게 도전과 성장이 공존하는 해입니다. 직장에서 새롭게 시도해볼 기회가



많고, 그만큼 성과를 거둘 가능성도 높습니다. 올해는 특히 팀워크와 협력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금전운은 안정적이며, 큰 재물 운보다는 소소한 수익이 꾸준히 들어오는 형태가 예상됩니다.

연애운 역시 긍정적이지만, 장기적인 관계보다는 가벼운 만남이 더 유리한 시기입니다.

건강운은 평소보다 신경을 써야 합니다. 특히 과로로 인한 피로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학문과 목표 면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주요 이벤트:** 상반기에는 직장 내 새로운 프로젝트에서 리더 역할을 맡아 성과를 내기 좋은 시기입니다. 상반기에는 팀워크가 중요한 시기이므로, 협력에서 얻는 이득이 클 것입니다.

### 소띠 (1949, 1961, 1973, 1985, 1997, 2009, 2021년생)

소띠에게 2025년은 자신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해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해왔던 일에 변화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금전운은 큰 변동이 없지만, 새로운 투자를 시작하기에는 다소 조심스러운 시기입니다.

연애운에서는 이전과는 다른 사람과의 인연이 기대됩니다. 기존 관계에 변화를 줄 준비를 하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강운에서는 체력 관리가 중요하며,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몸을 단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문과 목표 면에서는 조금씩 계

획을 세우고 실천에 옮기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주요 이벤트:** 하반기에 중요한 재정적 기회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로운 책임을 맡거나 인사에서의 변화가 예상되며, 투자와 관련된 좋은 소식이 올 수 있습니다.

### 호랑이띠 (1950, 1962, 1974, 1986, 1998, 2010, 2022년생)

2025년은 호랑이띠에게 활력이 넘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올해는 자신이 원하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는 시기로,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금전운은 새로운 수익원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재테크나 부동산 쪽에서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연애운에서는 열정적인 사랑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으나,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건강운은 좋은 편이지만, 활동적인 생활로 인해 체력을 소모할 수 있으니 충분한 휴식을 취하세요.

학문과 목표 면에서는 더 높은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공부나 트레이닝에 투자하면 좋습니다.

**주요 이벤트:** 초봄에는 창업 기회가 좋으며 재테크 및 부동산에서 긍정적 기운이 흐릅니다. 여름에는 감정적인 기복이 클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 토끼띠 (1951, 1963, 1975, 1987, 1999, 2011, 2023년생)

토끼띠에게 2025년은 차분하게 자신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해입니다. 그동안 노력해온



일의 결과를 볼 수 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금전운은 안정적이며, 급하게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연애운에서는 관계의 깊이가 더해지며, 장기적인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큼니다.

건강운은 평소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소화기 계통의 건강에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학문과 목표 면에서는 전문성을 더 키우기 위한 공부나 연구에 집중하세요.

**주요 이벤트:** 연초에 중요한 계약 성사가 예상되며, 하반기에는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할 좋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여름에는 연애운이 상승하니 싱글에게 특히 유리합니다.

### 용띠 (1952, 1964, 1976, 1988, 2000, 2012, 2024년생)

2025년은 용띠에게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는 해입니다. 기존의 틀을 깨고 나와 새로운 방식으로 도전하는 것이 좋은 성과



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금전운에서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애운에서는 새로운 인연이 생길 가능성이 크고, 진지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건강운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며, 특히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문과 목표에서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거나 이전에 관심 있던 것을 다시 시작해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주요 이벤트:** 상반기에 직장 내 이동이나 큰 역할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새로운 인맥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반기에는 장기적인 재정적 준비가 필요하므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 뱀띠 (1941, 1953, 1965, 1977, 1989, 2001, 2013, 2025년생)

을사년에 태어난 뱀띠는 2025년이 특별히 의미 있는 해입니다. 이 해는 뱀띠에게 중요한 전환



점이 될 가능성이 큼니다. 금전운은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지나친 욕심보다는 적당한 이득을 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애운에서는 과거 인연과의 재회나 새로운 만남이 기대됩니다.

건강운은 전반적으로 양호하지만,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필요합니다.

학문과 목표 면에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요 이벤트:** 상반기에는 재정적 안정감이 높아지며, 중요한 재정 계획을 세우기에 좋습니다. 하반기에는 새로운 만남이 기대되며, 인연이 깊어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 말띠 (1942, 1954, 1966, 1978, 1990, 2002, 2014년생)

말띠에게 2025년은 다소 변동이 많은 해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할 필



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습니다.

금전운은 예상 외의 수익이 들어올 수 있지만, 동시에 지출 관리가 필요합니다.

연애운에서는 뜨거운 연애보다는 차분하고 안정적인 관계가 더 유리할 것입니다.

건강운은 활동량을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문과 목표 면에서는 실무적인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이벤트:** 상반기에는 예상치 못한 수익을 얻을 기회가 생길 것이며, 해외 여행이나 장거리 이동이 길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관계의 안정성이 중요해지니 주의 깊게 소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양띠 (1943, 1955, 1967, 1979, 1991, 2003, 2015년생)

양띠에게 2025년은 내실을 다지는 해가 될 것입니다. 현재 위치에서 만족하기보다는 더 나은 결과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전운은 안정적이며, 투자를 통해 소소한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연애운에서는 상대방과의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운은 꾸준한 자기 관리를 통해 양호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학문과 목표에서는 전문성을 더하는 공부나 자격증 취득이 유리합니다.

**주요 이벤트:** 상반기에는 주거나 생활 환경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며, 가을에 재정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인맥 관리가 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 원숭이띠 (1944, 1956, 1968, 1980, 1992, 2004, 2016년생)

원숭이띠에게 2025년은 다소 도전적인 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많으나, 자신



감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금전운은 안정적이지만, 큰 투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애운에서는 예상치 못한 사람과 인연이 닿을 수 있습니다.

건강운은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문과 목표 면에서는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 닭띠 (1945, 1957, 1969, 1981, 1993, 2005, 2017년생)

닭띠에게 2025년은 진취적인 활동이 많아지는 해입니다. 자신이 원하던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며, 적극적인 태도가 요구됩니다.

금전운은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애운은 다소 기복이 있지만, 성숙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건강운은 과로를 피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문과 목표 면에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한 재정 계획을 세우고 대비해야 할 시기이며, 여름철에는 연애운이 상승하여 깊은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개띠 (1946, 1958, 1970, 1982, 1994, 2006, 2018년생)

개띠에게 2025년은 새로운 시각과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해입니다. 평소의 패턴을



깨고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금전운은 비교적 양호하며, 재정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연애운은 긍정적인 기운이 있으며, 서로의 신뢰를 쌓아가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건강운은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문과 목표 면에서는 자신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공부에 집중하세요.

**주요 이벤트:** 연초에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계획하기 좋은 시기이며, 하반기에는 뜻밖의 재정적 안정감을 얻게 될 가능성이 큼니다. 연애에서도 상호 신뢰가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 돼지띠 (1947, 1959, 1971, 1983, 1995, 2007, 2019년생)

돼지띠에게 2025년은 자신의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는 해입니다. 목표를 재정



비하고, 더 높은 곳을 바라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금전운은 좋은 편이지만, 과도한 지출을 피해야 합니다.

연애운에서는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좋은 시기이며, 새로운 사람과의 인연도 기대됩니다.

건강운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며,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문과 목표 면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요 이벤트:** 상반기에는 재정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며, 여름철에는 중요한 인연과의 만남이 기대됩니다. 하반기에는 장기 목표를 위해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에 유리한 시기입니다.

### 마무리

2025년은 변화와 기회的一年이지만, 과도한 욕심과 무리한 도전은 피하세요. 중요한 결정은 신중하게 하고, 재정적으로는 충동적인 투자를 삼가야 합니다. 건강과 감정 관리에 주의하면서 유연하고 차분한 태도로 나아가는 것이 행운을 불러올 것입니다.

2025년 을사년은 모든 락에게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며, 각자에게 맞는 기회를 잡고 신중하게 계획해 나가는 해가 될 것입니다. 올 한 해가 풍성한 성장과 변화를 가져다주기를 기원합니다.

(인터넷 자료에서)

# 이 모 저 모

(2편의 계속)

## На Сахалине пройдет чемпионат по робототехнике «Сахалин 6.0»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 25 по 27 апреля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чемпионат по робототехнике «Сахалин 6.0», посвященный технологиям в сельском хозяйстве.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а министр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настасия Киктева.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нем могут школьники и студенты в возрасте от 4 до 22 лет. Темой сезона стал «Богатый урожай». Участники будут решать задачи по сбору, транспортировке и хранению урожая, используя опыт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В этом году чемпионат проходил в Красноярске. Теперь ребята с нетерпением ждут новых состязаний.

## 우글레고르스크에서 가장 예쁜 '스네구로츠키' 선발

우글레고르스크 지역에서 가장 예쁜 '스네구로츠키(눈의 소녀)'를 선발한다고 '우글레고르스크 웨도모스티'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전했다.

'스네구로츠키' 선발대회는 12월 28일(토)까지 진행되며, 마감 시간까지 게시물 아래 댓글로 제드 모로즈(추위 할아버지)의 도우미 복장을 한 사진을 올릴 수 있다.

게시된 스네구로츠키 사진에 대한 반응의 수로 평가해서 최우수 스네구로츠키에게는 제드 모로즈의 선물을 선사한다.

## В Углегорске выбирают самую красивую Снегурочку

В Углегорске выбирают самую красивую Снегурочку.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телеграм-канале "Углегорские ведомости". Конкурс "Снежная красота" продлится до 28 декабря. До этого времени можно загрузить свою фотографию в наряде помощницы Деда Мороза в комментарии под постом. Оценивать Снегурочку будут по количеству реакций на снимках. Лучшей участнице до-

станется подарок от Деда Мороза.

## 〈나의 금융〉, сахалин 주민들에게 시험해보길 권해

сахалин 주민들에게 〈나의 금융〉 전국 릴레이에서 자신의 능력을 시험해보길 권하고 있다고 сахалин주 스포츠부가 전했다.

이를 위해 링크에 접속해 시험에서 자신의 지식을 점검하고, 시험을 통해 참가자들은 은행에서 올바른 대출 방법과 상환하는 법에 대해 알 수 있으며, 얼마까지 대출하는 것이 안전한지? 대출 기관을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

〈나의 금융〉 전국 교양 릴레이는 러시아 국민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교육에 대한 새로운 대규모 계획이다.

## Сахалинцам предлагают пройти тестирование «Мои финансы»

Жителя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едлагают попробовать свои силы во Всероссийской эстафете «Мои финансы».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ля этого стоит проверить свои знания на тестировании по ссылке. На тесте человек узнает, знает ли он, как правильно брать и гасить кредиты? На какую сумму безопасно брать кредит? Как выбрать кредитора? Напомним, что всероссийская просветительская эстафета «Мои финансы» – это новый масштабный проект по финансовой грамотности для россиян всех возрастов.

## 12월 31일 저녁, 단독 새해 티비쇼 сахалин 주민들을 기다려

새해 전야에 сахалин과 쿠릴열도에서 〈сахалин식 새해맞이-5〉 단독 티비(TV)쇼가 방영된다.

OTV방송사가 제작한 프로그램으로서 12월 31일(화) 명절 전야에 сахалин 주민들에게 화려한 공연을 보여줄 예정이다. 12월 19일(목) '스톨리차' 대강당에서 명절 행사를 축하한 가운데 참석자들은 행사에서 새해 가장 첫날의 분위기 속으로 빠져들었다.

2020년에 방영한 첫 сахалин의 〈푸른 불빛〉 기획이 당시 많은 호평을 받은 가운데 2024년에도 새해 전야의 자체 전통

방송이 되었다. 〈сахалин의 새해〉 방송에서는 시청자들에게 화려한 명절 쇼를 연출할 수십 명의 재능 있는 가수들과 창작곡, 무용가, 음악가들이 총 출연해 무대에 오른다.

이번 행사에 80명의 예술인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음악 장르에서 25개의 곡을 선보이며, 관객들은 악기 연주만 아니라 대중음악도 즐길 수 있어 누구나 좋아하는 것을 프로그램에서 찾게 될 것이다. 〈сахалин식 새해맞이-5〉는 2024년 12월 31일 23시부터 2025년 새해가 시작되는 1시간 동안 сахалин OTV 방송 채널이 실시간으로 방송한다. 명절 방송을 못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방송사는 재방송도 편성할 예정이다.

##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ждет эксклюзивное новогоднее телешоу вечером 31 декабря

В новогоднюю ночь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покажут эксклюзивное телевизионное шоу «Новый год по-сахалински-5». Производством программы занималась телекомпания ОТВ, и праздничным вечером 31 декабря островитяне увидят яркий концерт.

Съемка праздничного мероприятия прошла в конгресс-холле «Столица» 19 декабря, ее участники погрузились в атмосферу Нового года самими первыми.

Первый «Голубой огонек» по-сахалински сняли в 2020 году, тогда проект получил много восторженных отзывов, поэтому к 2024 году стал своеобразной традицией новогодней ночи. «Новый год по-сахалински» собирает на одной сцене десятки талантливых исполнителей, авторов песен, танцоров и музыкантов, которые создают для зрителей яркое праздничное шоу.

В мероприяти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более 80 артистов и показали 25 номеров разных музыкальных жанров — зрители смогут насладиться как инструментальной музыкой, так и популярной. Каждый найдет в программе то, что придется по душе. «Новый год по-сахалински-5» стартует в эфире телеканала «ОТВ-Сахалин» за час до наступления Нового, 2025 года — 31 декабря в 23:00. Для тех, кто не успеет посмотреть праздничную премьеру, телекомпания организует повторные показы.

(сахалин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025 год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115 руб.49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МЕБЕЛЬНАЯ ФАБРИКА 1+2** КУПИ ДИВАН - ПОЛУЧИ ПОДАРОК!

ул. Украинская, 58, тел.: 77-77-00

##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l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p><b>Издатель:</b>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워토리아</p>	<p><b>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b>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b>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b>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2-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
--	---	--	--	--	--